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The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s and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장윤옥(Yoonok J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expenses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16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aged 8 to 19 years old living in Daegu. The data analysis methods adopted for the study were two-way ANOVA and Scheffé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In the group of mothers of low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spent more money on academic education and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than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of mothers of high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spent more money on academic education and spent less money on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than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group of mothers of middle household incom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In the group of mothers of middle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low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perceived there was a higher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an the mothers with high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xpenditur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The mothers with high household income spent more money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did well in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than the mothers with middle and low household income.

▲주제어(Key Words) :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교육소비욕구(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사교육비(expense of private educations), 경제적 노후준비(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학령기 어머니(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 Corresponding Author : Yoonok J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1-702, Korea, tel: +82-53-950-5928, E-mail: yojang@knu.ac.kr

I. 서론

가계의 소비는 가족원의 특성, 가치관, 목표, 그리고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가정생활주기는 가계의 소비욕구와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뚜렷한 발달과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어 가계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에 있는 가계의 목표와 소비지출이 다른 가정생활주기 단계에 속하는 가계의 것보다 자녀중심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심화(Kim, 1999) 되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7.6%(OECD 국가 중 2위)로 OECD 평균 5.9% 보다 더 높을 만큼(OECD, 2008) 우리나라 가계에서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계조차도 초등학교 자녀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Kim, 2002)을 볼 때 자녀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사교육비 지출액은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전 연령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제한된 가계소득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는 국가재원낭비, 계층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Hong, 2009) 뿐만 아니라 가계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면 부모의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9).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소비욕구로 이어지고 현재의 가계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계속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령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부모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Lee, 2005).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 학령기는 생애주기상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 부모부양, 노후준비, 내 집 마련 등의 많은 재무목표들이 우선순위를 달리하며 모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존재하는 시기이고, 이제 곧 감소될 소득수준과 은퇴시기를 고려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역시 충실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가계는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재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들(Burm & Moon, 1992; Baek & Moon, 2005; Park, 2008)이 보고하고 있다. 즉, 학령기 가계의 중요 재무목표는 자녀교육비 문제와 노후생활 문제이지만 대체로 초등학교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계는 자녀교육비를 1차적 재무목표로, 은퇴준비나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은 더 장기적인 재무목표로 설정하고 있음(Baek & Moon, 2005)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부모들도 자녀들의 부양의식과 경로사상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부모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Kim, 2009)는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소비욕구 또한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Na & Yoon, 2011). 결국 부모들은 가계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 둘 다를 충분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교육보다 자신의 노후준비를 희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Todd & DeVaney, 1997; Lee, 2012)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대체·보완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대책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아무런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30~40대부터 계획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Park, 2007) 등은 퇴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노후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안정적 생계를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Cho & Kim, 2007), 노후를 위한 재정적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노후준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이것은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지만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가정생활주기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출현하는 재무목표들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준비하는 노후자금에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규모가 상당히 낮기(Sun, 2010) 때문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출이므로 이 두 가지 재무목표로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지 않을 때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생활 및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실제로 희생하고 있는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고,

가정이 지속적으로 성장·유지될 수 있도록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지출의 균형점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Jung, 1996; Moon, Kim, & Kim, 1996; Park & Yeo, 2000; Kim, 2002; Lee, 2002)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계소득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이 더 높다거나 사교육비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등의 상반된 보고(Kim, 1997; Kim, 2002)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수준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 양상이 교육소비욕구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im, 1999). 또 어머니의 교육 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규모(Na & Yoon, 2011)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Kang, 2007),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Noh, 2006)라는 보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계소득은 제한적이어서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객관적인 한계를 규정하게 하는 반면에 부모의 교육 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주관적인 한계를 규정하게 하여 부모가 실제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이나 교육 소비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Kim & Yeo, 1996; Lee, 2006; Park, 2006; Kang, 2007)은 부모가 지각하게 되는 부담감은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부모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다. 또 학령기 어머니들은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확률은 높다고도 한다. 이는 교육 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부모가 지각하게 되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라는 주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현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가계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월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하며(Kim, 2002; Lee, 2009; Bae & Jeon, 2010; Sun, 2010), 주관적 노후준비 정도도 높다(Kim & Park, 1992)고 보고한다. 또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고(Park, 2008), 자녀학령기가 지

나서 자녀교육비 지출이 끝난 가계가 노후생활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Cho, 2011)고 한다. 이처럼 학령기 가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가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소득 뿐만 아니라 교육소비욕구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제적 노후준비 또한 단순히 가계소득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소비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학령기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한다(Park, 2008)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에 대한 연구들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가계가 많다(Sun, 2010)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노후준비가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노후의 주택계획이나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정보의 수집 및 교육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므로(Rhee & Chang, 1993) 다양한 측면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실제 지출하는 객관적인 금액 뿐만 아니라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고 교육을 받거나 노후의 소득 원천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수준도 포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계소득과 이들이 지각하는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가계의 사교육비 실제 지출액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의 차이를,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들의 차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가계의 경우 자녀 위주로 재무 목표 및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Kim & Kim, 2008)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대체로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결국 교육비 지출은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가계재무 및 소비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Lee, 2006)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인적 자본에의 투자라는 측면보다는 가계의 소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학령기 가계에서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라는 두 가지 재

무과업이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 정도가 사교육비 지출금 및 부담감,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래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간의 합리적인 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한된 가정자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로 노후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음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실질적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이들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에는 차이가 있는가?
- [1-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가?
- [1-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차이가 있는가?
- [2-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가?
- [2-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사교육비

사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므로 공교육비는 광의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기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 Korea Consumer Agency(1997)은 사교육비를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관련 경비로서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구독, 방과 후 보충수업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이용할 때 따르는 비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실제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액과 이러한 지출로 인해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다.

Korea Consumer Agency(1997)은 가계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32.1%)이며 그 다음이 식생활비(31.8%), 주거비(8.5%)의 순이라고 보고한다. 또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도 교육비이며,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가계의 주된 저축 목적이라는 응답이 23.2%라고 말한다. Kim(1999) 역시 학령기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하며,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1.7%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시기는 자녀가 중학교(76.9%)에 다닐 때이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학생은 초등학교(8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생은 월평균 24만 1천, 중학교생은 26만 2천원,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은 25만 9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Statistics Korea, 2012).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때보다 심리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 학업관련 사교육뿐만 아니라 예·체능관련 사교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Lee(2002)는 자녀가 취학전과 초등학교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데,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특기교육 차원에서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나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또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가 1명인 가계와 2명인 가계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은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Lee(2006)는 가계 특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증가하며, 사교육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배분의 조정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o(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0% 이상의 가계가 사교육비가 상승하더라도 계속 사교육을 시킬 것이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나타나 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자금 마련, 노후자금 활용방안, 노후 주택계획,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정보 수집 및 교육 등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부분의 대비를 의미한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크게 실제 노후준비를 위해 가계가 지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제로 본인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실질적인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9.5%가 노후를 위해 재정적 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78.9%가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2008)도 자녀학령기 가계의 80%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자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Lee(2012)은 2007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알아본 가계의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69만원, 적정노후생활비는 평균 10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이 자신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살펴본 Lee(2009)는 '노후준비를 하였다'고 응답한 노인이 53.6%,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46.4%를 차지하였으며, 노후준비를 하였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노후준비방법을 살펴보면 '집을 마련하였다'가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은행저축 17.8%, 공적연금 15.5%, 보험가입 6.6%, 부동산 마련이 5.6% 순이라고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을 알아본 Sun(2010)은 모든 가계유형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가계가 많았으며, 부동산 투자, 건물임대, 그리고 기타 다른 준비방법을 사용하는 가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Rhee and Chang(1993)은 노후대책 여부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에서 노인들의 노후대

책은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의 가계유형에서 현재 경제상태가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현재 가계경제평가가 경제생활계획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Lee(1999)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은퇴 후 경제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경제계획을 준비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Lee(2009)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학력, 자녀유무, 월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등을, Bae and Jeon(2010)은 연령, 결혼상태, 소득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30대보다 40·50대가, 미혼이나 결혼 후 독신자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3. 교육소비욕구

소비욕구란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소비를 위해서 주관적으로 원하거나 바라는 소비 소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 Kim, 2008). 이러한 소비욕구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욕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육소비욕구는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 '강한 교육적 열기',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의 열기' (Jung, 1984; Bae & Lee, 1988) 등과 같은 다소 포괄적인 정의에서부터 '입신 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나 일류의 학벌 등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Kim, 1985)'이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열망과 실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Kim, Lee, & Park, 1993)' 등과 같이 다소 제한적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교육열, 자녀교육열,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열의 등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교육소비욕구는 교육받을 사람의 욕구라기보다도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 즉 부모의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소비욕구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교육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 욕구와 그 욕구가 표출되는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나 열의나 지원행위가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더 높음을 보고(Kim, Lee, & Park, 1993; Jung, 1996; Hyun, 2003; Kim, 2008; La & Yoon, 2011)하고 있다. Seo(2004) 역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교육이 출세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졸업한 명문대학을 그

들의 자녀도 다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중 Kim, Lee, and Park(1993)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지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부모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욕구의 강도와 실제로 이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교육소비욕구는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가계의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거의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교육소비욕구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 주민, 그리고 미디어 등이 미치는 영향(Kim, 2003)과 함께 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자신도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Kim, 2008)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은 조기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된다(Han, 2004)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Hwang(2000)은 모든 계층에서 우리나라의 절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교육욕구를 표출한다고 하며, Jo(2002)도 초·중·고등학생의 부모 간에 교육욕구의 내·외적 동기 정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육욕구의 외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며 학업성적 향상과 교사의 교수능력을 기대하는 정도는 높아져서 결국 사교육에의 참여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4. 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Seo(2004)는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는 가계의 총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어머니 학력, 거주 지역, 어머니 직업의 순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교육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a and Yoon(201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지출규모도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며,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비 지출여부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만 유의하였다고 보고한다. Lee(2004), Lee(2011)도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Hong(2009)도 가구특성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 관련요인을 살펴본 Lee(2003)는 저소득층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중간 계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고소득층 가계의 사교육비 지

출은 저소득층 가계의 약 5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가계의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변화를 조사한 Baek and Ahn(2012)도 가계소득이 중산층인 가계가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회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경우 자기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소득 변화에 관계없이 사교육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른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의 불안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Kim, 2003).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머니들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Na and Yoon(2011)은 우리나라 어머니는 본질적인 교육소비욕구가 도구적인 교육소비욕구보다 더 높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욕구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Jang(2007)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말한다. 반면 Noh(2006)는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기 싫은 혹은 보상심리로 인해 다른 가계지출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o(2006)은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부터 500만원 미만인 가계들 모두 대학교수준의 자녀 학업을 기대하는 반면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유학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Cho(2006)의 연구결과, 모든 계층의 부모들이 강한 교육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Hwang(2000)의 연구결과, 그리고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ng, 2007; Na & Yoon, 2011)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사교육비에 미치는 학령기 가계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orea Consumer Agency(1997)은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교육기에 경제적 복지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특히 첫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계의 경우 가장 취

약하다고 보고하면서, 학령기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소비욕구가 높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과 그러한 지출로 인한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Jo (2007)는 자녀가 취학하기 전보다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훨씬 높으며,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증가하는데,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고한다.

Kang(2007)은 사교육비 효과를 많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Park(2008) 역시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Kim and Yeo(1996)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 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Park, Lee, and Choi(2010)는 예비 노인들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7.8%)'이며, 따라서 소득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 역시 노후대비 가장 큰 제약요인이 소득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Hong and Kwak(2007) 연구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이 노후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 and Suh(2011)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월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태가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특성 및 노후준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You and Choi(2012)는 월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며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한다고 말한다. 또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 실태를 살펴본 Lee(1999)도 월평균소득이 400만원 미만의 가계의 경우 노후 경제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빈도가 더 높지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의 노후 경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소비욕구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지며 이에 따라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이 위축되어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감소될 수 있다. 실제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였고,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재무 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2) 부모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농가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 and Choi(1992)는 첫 자녀가 초등교육기 일 때 중·고등교육기일 때보다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자녀교육비 부담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Todd and DeVaney(1997)는 조사대상자의 25%가 자녀의 학비를 내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무려 60%였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자녀 교육비 때문(60%)'(Mirae Asset Retirement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0)이며,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 역시 낮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하다(Lee, 2012)고 말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가구 중 76.8%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약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다면 그 금액을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7)고 하며, 많은 가계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한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Ko, 2004)하기도 한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는 주된 원인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가계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Park(2008)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월 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고,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는 등 다른 지불원천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평균 가계소득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

택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월 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반면 Cho(2011)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자녀학령기가 끝난 가계에서는 자녀교육비 지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저축이 있을 때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41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Kim, 2003)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은 '30세~39세'가 215명(51.7%)으로 가장 많고,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232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 199명(47.8%)

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 123명(29.6%)이며,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78명(42.8%)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 졸업'이 172명(41.3%)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263명(63.2%)으로 가장 많고, 1명이 132명(31.7%), 3명이 21명(5.0%)이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88명(45.2%)으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39명(3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9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249명(59.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가 107명(25.7%), '중상'이 40명(9.6%) 순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및 은퇴와 관련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무직·전업주부'가 183명(44.0%)으로 가장 많고, '사무직'이 57명(13.7%), '임시직'이 42명(10.1%)이며,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167명(40.1%)으로 가장 많고, '생산직'이 129명(31.0%), '전문직'이 5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은퇴연령은 어머니의 경우 '은퇴없음'이 157명(37.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직·전업주부'가 질문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85명(20.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55세~60세 미만'이 187명(45.0%)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144명(34.6%)이다.

직장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존재 여부에 있어 '연금가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284명(68.3%)으로 가장 많고, '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16)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mother's age	under 30	6(1.4)	father's age	under 30	0(0.0)
	30~39	215(51.7)		30~39	144(34.7)
	40~49	169(40.5)		40~49	232(55.9)
	above 50	26(6.1)		above 50	40(9.4)
mother'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8(1.9)	father's scholastic ability	under middle school	4(1.0)
	high school	79(19.0)		high school	45(10.8)
	collage	199(47.8)		collage	172(41.3)
	university	123(29.6)		university	178(42.8)
	graduate school	7(1.7)		graduate school	17(4.1)
children	1	132(31.7)	residence form	one's own house	221(53.1)
	2	263(63.2)		lease of a house	168(40.4)
	3	21(5.0)		monthly rent	15(3.6)
		the others		12(2.9)	
household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5(1.2)	living standard	low	18(4.3)
	2-3 million won	59(14.2)		middle-low	107(25.7)
	3-4 million won	188(45.2)		middle	249(59.9)
	4-5 million won	137(32.9)		middle-high	40(9.6)
	5-6 million won	21(5.1)		high	2(0.5)
	above 6 million won	6(1.4)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Employment and Retirement of Participants (N=416)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mother's employment	agriculture · fishery worker	7(1.7)	father's employment	agriculture · fishery worker	9(2.2)
	part time	42(10.1)		part time	7(1.7)
	technician	37(8.9)		technician	129(31.0)
	office worker	57(13.7)		office worker	167(40.1)
	service worker	25(6.0)		service worker	8(1.9)
	manager	2(0.5)		manager	20(4.8)
	professional	9(2.2)		professional	17(4.1)
	self-employment	53(12.8)		self-employment	56(13.5)
mother's expected retirement age	no job/housewife	183(44.0)	father's expected retirement age	no job/housewife	2(0.5)
	the others	1(0.2)		the others	1(0.2)
	under 50	37(8.9)		under 50	20(4.8)
	51-55	58(13.9)		51-55	41(9.9)
	55-60	78(18.8)		55-60	187(45.0)
mother's pension	above 60	85(20.4)	father's pension	above 60	144(34.6)
	don't retirement	157(37.7)		don't retirement	21(5.0)
mother's pension	no response	1(0.2)	father's pension	no response	3(0.7)
	retirement allowance	64(15.4)		retirement allowance	204(49.0)
	retirement pension	53(12.7)		retirement pension	83(20.0)
	retirement allowance · pension	6(1.4)		retirement allowance · pension	26(6.3)
	pension for government employees	8(1.9)		pension for government employees	16(3.8)
	no pension	284(68.3)		no pension	84(20.2)
no response	1(0.2)	no response	3(0.7)		

퇴직금'이 있는 어머니가 64명(15.4%), '퇴직연금'에 가입한 어머니가 53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퇴직금'이 있는 아버지가 204명(49.0%)으로 가장 많고, '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84명(20.2%), '퇴직연금'에 가입한 아버지가 83명(20.0%)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9월 10일 ~ 14일까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8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12년 12월 17일 ~ 23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학령기 어머니 들에게 배부·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 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16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교육소비욕구 척도

교육소비욕구 척도는 Kim, Lee, & Park(1993), Kim (2010), Hyun(2003), Kim(2006)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9문항을 교육 소비욕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질적 교육소비 욕구(9문항)로, 요인 2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 하기 위한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구적 교육소비 욕구(10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7이며, 본질적 교육 소비욕구는 .89,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는 .87이다.

2) 사교육비 척도

(1)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액은 자녀 1인이 아닌 자녀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국어(논술, 속독 등),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각의 과외비·학원비와 그 외 학업(종합, 과학, 사회 등) 관련 과외비·학원비, 학업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학업교육비와 음악 및 미술 과외비·학원비, 체육(축구, 태권도 등) 활동비, 문화체험비, 예·체능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예·체능 교육비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2)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척도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척도는 Kim(1999), Ko(2004), Ham(2010), Park(2008)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내구재 구매, 외식, 여행, 저축, 의료비, 부모님 용돈 등을 줄였다거나 대출이나 카드 값을 제때 갚지 못했다, 혹은 사교활동이나 자기개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3) 경제적 노후준비 척도

(1) 노후준비 지출액

노후준비 지출액은 노후준비만을 위하여 월평균 지출하는 부부의 노후준비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노후준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연금과 기업과 관련된 연금인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준비만을 위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하는 연금보험·저축,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펀드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 지출액은 이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자가 질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노후준비 지출액으로 측정하였다.

(2)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는 Lee(2010), Park(2004), Kim(2002), Kim(2009), Sun(201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충분히 하고 있다'에 5점부터 '전혀 하고 있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2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6문항을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본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출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관리 행동으로, 요인 2는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육을 받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탐색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0이며, 재무관리행동은 .81, 정보탐색 행동은 .80이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의 월소득의 평균은 375만 5천원이고, 학업교육 관련 사교육비는 월평균 가계당 39만 3천원,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13만 6천원을, 그리고 부부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월평균 가계당 72만 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3.8로써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은 2.4,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의 평균은 1.8로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연구대상자를 가계소득에 따라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416)

Variables(unit)		M(SD)	Variables	M(SD)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3745(87.1)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5 Likert)	3.8(.38)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5 Likert)		2.4(.68)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5 Likert)	1.8(.38)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ousand won)	academic education	393(28.3)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thousand won)	725(38.1)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136(12.4)		

Table 4. The Differences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variables	group(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ousand won)		expenditures for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Mean(SD)	F value	Mean(SD)	F value
household income (A)	high(127)	570.7(30.8) b	11.243**	140.3(13.5)	.534
	middle(188)	320.7(24.3) a		140.8(11.3)	
	low(101)	280.4(20.1) a		100.8(12.6)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410.8(28.6)	.309	110.6(11.6)	2.594
	low(216)	370.0(28.0)		160.0(12.9)	
A × B	high (127)	high(91)	530.3(30.4)	4.127**	160.9(13.9)
		low(36)	690.0(29.4)		70.7(9.9)
	middle (188)	high(95)	310.8(24.0)		150.4(10.8)
		low(93)	330.5(24.7)		140.2(11.9)
	low (101)	high(14)	340.6(16.5)		130.3(18.4)
		low(87)	270.3(20.6)		100.4(11.4)

*p < .05, **p < .01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Statistics Korea(2012)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3만원이며, 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 중 가계의 월소득이 301~400만원 미만인 연구대상자를 가계소득 중집단으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연구대상자를 상집단으로, 그리고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연구대상자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중 교육소비욕구가 평균(3.50)보다 낮은 연구대상자를 교육소비욕구 하집단으로, 평균보다 높은 연구대상자를 상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

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에 따라 학업교육비 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체능교육비 지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 않았으며, 교육소비욕구 수준에 따른 가계의 학업교육비 및 예·체능교육비 지출액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오프라인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Hong (2009)의 연구결과,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Lee(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한다는 Na and Yoon(2011), Cho(201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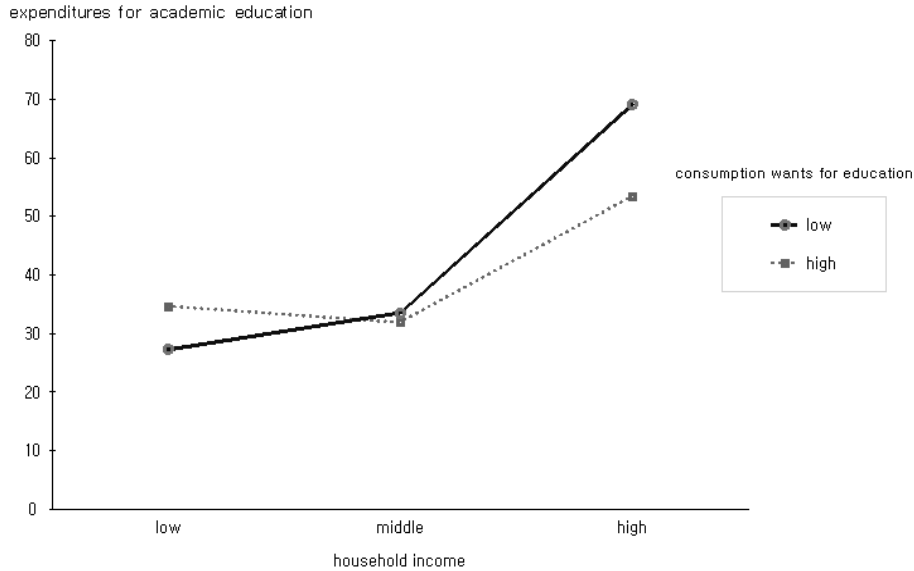


Figure 1.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Expenditures for Academic Education

지출에 대한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된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 이것은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아니라 한 Noh(2006), Kim(2004)의 연구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소비욕구 보다도 실제 지출의 근거가 되는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교육비 지출(F=4.127, p<.01)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34.6)이 낮은 어머니들(M=27.3)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69.0)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53.2)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33.5)과 높은 어머니들(M=31.8)간에 학업관련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간의 상호작용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밝힌 Jung

(1996)의 연구결과와 월 평균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다고 한 Kang(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Hyun, 2003) 이에 따라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Choi, 2003; Hyun, 2003)는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가계소득이 낮지만 자녀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은 어머니들 즉,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교육에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어머니들 중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지출할 때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나름대로 균형있는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는 비록 교육소비욕구는 낮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주변의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일이므로 일단은 한다는 생각으로 지출하게 되어 오히려 학업관련 지출로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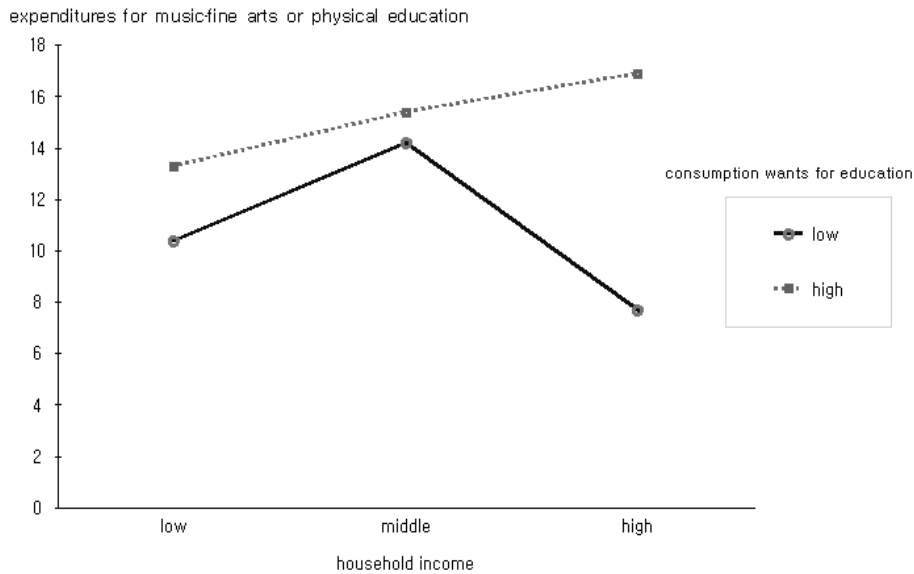


Figure 2.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Expenditures for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 아니라,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나 주변의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분위기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Kim(2008)의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를 통제하고 난 후에는 거주 지역이 사교육비 지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어머니는 본질적인 교육소비욕구가 도구적인 교육소비욕구보다 더 높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라는 Na and Yoon(2011)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체능교육비 지출 ($F=3.655, p<.05$)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13.2$)이 낮은 어머니들($M=10.3$)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16.9$)이 낮은 어머니들($M=7.7$)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14.1$)과 높은 어머니들($M=15.3$)간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높거나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미래에 전망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학업에만 초점을 두고 자녀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전인적 발달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데 반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보다 예·체능관련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높지만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예·체능관련 교육에는 관심을 적게 갖지만 가계소득에는 여유가 있어 자녀의 학업관련 교육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는 낮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자녀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중 학교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82.3%,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는 76.0%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관련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 Kim(1999)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variables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5 Likert)		Mean(SD)	F value
	group(N)			
household income (A)	high(127)		2.4(.60)	7.056
	middle(188)		2.2(.66)	
	low(101)		2.8(.69)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2.3(.68)	.115
	low(216)		2.5(.66)	
A × B	high (127)	high(91)	2.3(.63)	2.677*
		low(36)	2.5(.49)	
	middle (188)	high(95)	2.1(.68)	
		low(93)	2.5(.62)	
	low (101)	high(14)	3.0(.55)	
		low(87)	2.7(.7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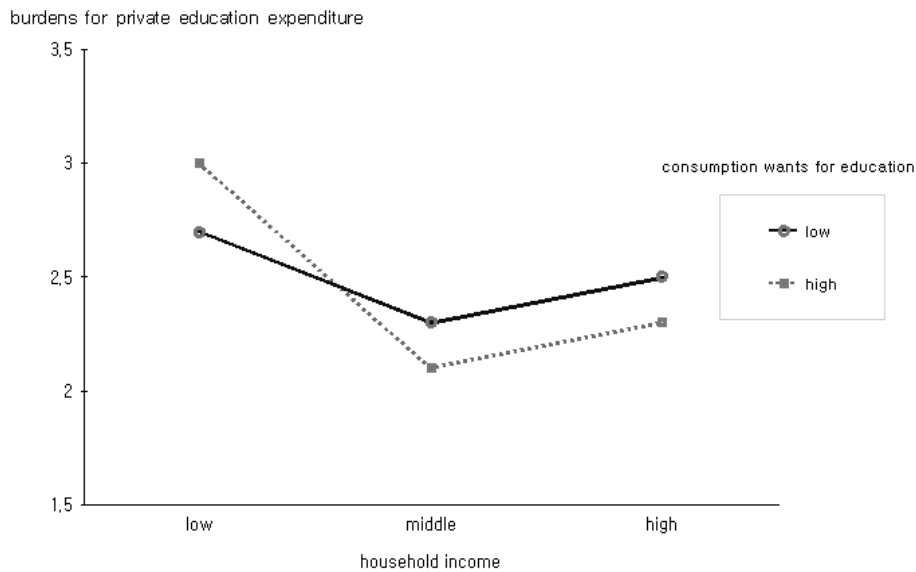


Figure 3.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on Perceived Burdens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F=2.677, p<.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3.0)과 낮은 어머니들(M=2.7)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M=2.3)과 낮은 어머니들(M=2.5)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 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M=2.3)이 높은 어머니들(M=2.1)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계에서는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으로 모든 가계지출에 부담을 갖게 되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은 더 크지만 교육소비욕구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에서는 경제적 여유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계에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컸는데 이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지출할 여력이 있고, 그것을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사회전반적인 풍토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 시키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기꺼이 시킬 마음도 없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은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 중에서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도 기본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크나 자녀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지출에 대해 만족도가 크지 않으므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클 수도 있을 것이며 반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교

육비 지출 부담감은 오히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이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 Kim and Yeo(1996)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효과를 많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하는 Kang(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노후준비 지출액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가계의 노후준비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준비 지출액(F=89.88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M=99.7)

Table 6. The Difference in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variables	expenditure for old age preparation (thousand won)		Mean(SD)	F value
	group(N)			
household income (A)	high(127)		990.7(44.4)c	89.888**
	middle(188)		680.0(27.0)b	
	low(101)		460.7(22.8)a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800.0(40.2)	.021
	low(216)		650.6(34.8)	
A × B	high (127)	high(91)	1000.1(47.4)	.558
		low(36)	980.7(36.5)	
	middle (188)	high(95)	650.2(21.5)	
		low(93)	700.8(31.6)	
	low(101)	high(14)	490.1(17.4)	
		low(87)	460.3(23.7)	

*p < .05, **p < .01

Table 7. The Difference in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N=416)

variables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 (5 Likert)		Mean(SD)	F value
	group(N)			
household income (A)	high(127)		2.0(.38) b	24.231*
	middle(188)		1.7(.35) a	
	low(101)		1.6(.37) a	
consumption wants of education (B)	high(200)		1.8(.38)	6.677
	low(216)		1.8(.39)	
A × B	high (127)	high(91)	2.0(.42)	1.108
		하(36)	2.0(.26)	
	middle (188)	high(95)	1.6(.28)	
		low(93)	1.8(.40)	
	low (101)	high(14)	1.5(.20)	
		low(87)	1.6(.38)	

* $p < .05$

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68.0)보다,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M=46.7)보다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출액에 대한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가계소득이 높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Park(2008), Cho and Suh(2011), You and Choi(2012)의 연구결과,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소득이라고 하는 Park, Lee, and Choi(2010),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에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노후준비 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여 노후에 경제적 불안이 야기된다고 한 결과(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9)와는 다소 다르며, 교육소비욕구가 노후준비 지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F=23.231$,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M=2.0)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M=1.7)과 낮은 어머니들(M=1.6)보다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는 월 소득이 높고 주관적 경제력이 상충일수록 노후생활준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2007)의 연구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경제계획 수립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Lee(1999)와 일치하며, 가계의 소득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Lee, 2009; Lee, 2009; Bae & Jeon, 2010)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소득이 많고 총 자산이 많은 집단을수록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한 저축이 여유롭고 노후경제생활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Lee, 1999; Hong & Kwak, 2006)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출행동 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육을 받는 등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가계가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보다 약 3~4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대부분 학업적 성취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와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보다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사교육비 지출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이 외에도 자녀들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교육에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소득이 높고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학업관련 사교육비는 가장 많이 지출하고 예·체능관련 사교육비는 가장 적게 지출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이들이 교육소비욕구는 낮지만 경제적 여유는 있어 사교육의 주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학업적 성취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질과 비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채 소비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사교육비를 지출하는데 금전적 제약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학업관련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육소비욕구는 가계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 보다는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

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낮거나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과 낮은 어머니들 간에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 보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이며,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교육관이나 교육가치를 따르기 보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지출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가 적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지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필수적 지출로써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소득이나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 학령기 어머니들이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계속해서 많이 지출하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가계의 복지감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소득이 낮고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이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가장 큰 데 반해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이거나 높은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의 부담감이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개인이 지각하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에는 가계소득이라는 객관적 한계와 교육소비욕구라는 주관적 한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부모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가계소득이 중간 이상인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 특히 사교육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준비 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보다,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노후준비 지출액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실제로 노후준비 지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배분과 소비지출을 평가하여 보다 합

리적인 가계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중간 정도인 어머니들과 낮은 어머니들보다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 학령기 가계의 교육소비욕구는 경제적 노후준비 지출액과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지출액과 지출행동 뿐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며, 현재 재정상태가 양호해야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을 하는 것에도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받는 등의 노후준비행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령기 어머니들이 경제적 노후준비금 지출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매우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같은 정책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부분이 가계가 어느 정도는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과 노후소득 원천을 형성하거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탐색 및 교육을 받는 일에는 매우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노후준비행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적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할 때는 노후준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령기 가계가 다양한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무설계 및 합리적인 재무자원배분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유아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까지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가계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다 균형있는 가계재무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교육비와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행동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준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볼 때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 지출 및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령기 가계가 성취해야할 재무과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가계지출의 균형점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Bae, C. & Lee, M.(1988). Factor-dynamic analysis of public opinion in education(1) : Goals of educational policy : Excellence vs equal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7(1), 67-83.
- Bae, M. & Jeon, G.(2004).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7), 89-102.
- Bae, M. & Jeon, G.(2010).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8(1), 13-24.
- Baek, E. & Moon, S.(2005). A qualitative study on financial goals, problems and satisfaction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2), 87-109.
- Baek, H. & Ahn, S.(2012).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n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epending on income bracket. *Korea Social Policy Review*, 19(3), 9-47.
- Bailey, D. B. & Simensson, R. J.(1988). Assessing needs of families with handicapped infa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3), 117-127.
- Burm, S. & Moon, S.(1992). A study on the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0(1), 197-217.
- Cho, K.(2011). *The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households : Focused o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statu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nam Na-

- tional University, Daejeon.
- Cho, M.(2006). *The study on educational fever in Korea parents : Based on lifelong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Suwon.
- Cho, S. & Suh, H.(2011). A study of middle-aged men's job career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pouses on successful aged life plann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211-235.
- Cho, Y. & Kim, G.(2007). An empirical study on poverty and it's determinants by age group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3(3), 101-124.
- Choi, S.(2003). *The study on the re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size*.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Ham, S.(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costs on hospital workers' consciousness of preparation and their measures for their old-age life : Focused on those working for a general hospital in dongdaemun-gu, Seou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Han, J.(1998). A study of the educational growth motives of Korean women. *Journal of Asian women*, 37, 67-99.
- Han, J.(2004). Parents educational fever : Object and motivations of children's early learning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1), 219-251.
- Hawang, S.(2000). *A study on the attitude of elderly life and the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of the young - age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ungsan.
- Hong, H.(1996).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goal attainment among urban househol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157-171.
- Hong, S. & Kwak, I.(2007). Causal effects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5(2), 89-104.
- Hong, S.(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wang, H.(2000). *A study of parents' educational fever in relation to their social stratifica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parents in Jeju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Hyun, J.(2003). *The study on educational fever in Korea parents*.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Hyundai Research Institute(2009). *Private education, leading cause of retirement anxiety : The study on the re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 and the estimated market size*. Seoul: Hyundai Research Institute.
- Hyundai Research Institute(2012). *Structure of education expenditure in Korea household*. Seoul: Hyundai Research Institute.
- Jo, M.(2007). *The study of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Jo, S.(2002). *Parent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basic attitudes toward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Jung, W.(1984). The educational fever.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6(3), 81-91.
- Jung, Y.(1996). Household expenditures in private education and screening hypothesis : The case of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7(2), 207-221.
- Kang, L.(2007). Economic burden and its related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2), 315-331.
- Kim, E.(2002). *The analysis of the expenditure behavior on private education by the income level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Kim, G.(2003). Educational zeal and youth unemploy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4), 87-105.
- Kim, H.(2004). Analyzing the structure of variables affecting on private tutoring expens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22(1), 27-45.
- Kim, H.(2006). *Educational aspirations for university admission and educational supports according to social class of mothers with secondary schoolers : Inhabits the city of Sunghna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2009). *A study on the preparation consciousness and counterplan of the young and middle-aged for old*

- age life : Focusing on the young and middle-aged liv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I. & Choi, E.(1992). The level of expected economic demands and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of farm households in Kyungki-do,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 31-45.
- Kim, I. & Yeo, J.(1996).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 & the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37-149.
- Kim, J. & Choo, H.(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perception, educational expect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of parents in Daegu. *Secondary Institute of Education*, 59(4), 1031-1063.
- Kim, K.(2009). *A study for parents' desire, expectation, and support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 An ethnographica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Kim, K.(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value and educational enthusiasm o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tourism produ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tiy, Seoul.
- Kim, M. & Kim, K.(2008). Development of scale for measuring consumption wa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9(1), 1-23.
- Kim, M.(2002). *A study on the middle-aged people's financial preparation and stress for elderly lif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Gangwon.
- Kim, S. & Park, B.(1999). A study of coping behavior type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0), 67-79.
- Kim, S. & Park, W.(1992). Urban families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elderly lif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 45-57.
- Kim, S.(1997). *The factors causing private education and reduction methods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 Seoul: Korea Consumer Agency.
- Kim, S.(1999). A study on relation of expenses, burden, and economic welfare of private education in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0(3), 101-121.
- Kim, S.(2008). Korean mothers' fervor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2), 13-23.
- Kim, S.(2009). *A study on the preparation among the workers for old age : Focused on the Kongju c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Kim, Y.(1985). *The truth and falsehood on educational fever*. Seoul: The Korea Board of Education.
- Kim, Y., Lee, I. & Park, H.(1993). *The study on educational fever in Korean*.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 J.(2004). *A study on home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fe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Korea Consumer Agency(1997). *The study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the actual condition for utilization*. Seoul: Korea Consumer Agency.
- Lee, S.(2002).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and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7), 211-227.
- Lee, E.(2004). Economic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in Korea.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2(2), 1-31.
- Lee, J.(1999). *A study on the middle-aged worker's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2009).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2), 275-289.
- Lee, J.(2011). *An empirical study on participation in children's private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Lee, S.(2002).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143-159.
- Lee, S.(2003). The effect of household financial system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 Focused on income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1), 151-169.
- Lee, S.(2005).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3(3), 63-76.
- Lee, S.(2006). Household strategy for private educa-

- tional expenditure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15-132.
- Lee, S.(2009).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elderly who are residing in the city a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8(1), 205-224.
- Lee, S.(2012). A study of pension receipt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of the living cost for aging : Focusing on public pens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137-152.
- Lee, Y.(2010).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and the aging anxiety of middle-aged coupl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 Mirae Asset Retirement Pension Research Institute(2010). *Analysis on structure of education expenditure in Korea Household*. Seoul: Mirae Asset Retirement Pension Research Institute.
- Moon, S., Kim, S. & Kim, S.(1996). Expenditure on education for children's human capita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171-184.
- Na, Y. & Yoon, J.(2011). The effect of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6), 1199-1212.
- Noh, H.(2006).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 factors, student factors, and private tutoring expens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24(1), 97-118.
-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 EAG*.
- Park, C.(2008).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3), 275-297.
- Park, H., Lee, S. & Choi, E.(2010). The exploratory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pre-elderly(the age 55~64) living in the Chungcheongnam-do : Focused on analyzing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aging proportion of the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12), 285-315.
- Park, J.(2004).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preparation for their own old ag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 Park, M. & Yeo, J.(2000).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189-206.
- Park, M.(2007).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life and the recogni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for the Middle-age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Park, M.(2008). *Retirement planning and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mong the households schoo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Rhee, K. & Chang, M.(1993). A practical guide for focus group discuss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3(1), 84-98.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 *A study on consumer attitude in the forth quarter of the year*.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Seo, H.(2004).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he level of maternal interest in her children'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ohn, S.(2006). Familism and social conspicuousness in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Discourse* 201, 9(2), 245-274.
- Statistics Korea(2012)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private education in 2011*. www.kostat.go.kr
- Statistics Korea(2012).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family financing · welfare*. www.kostat.go.kr
- Sun, Y.(2010).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 Focused on married couples'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Todd, K. J. & Sharon A. D.(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25-32.
- You, I. & Choi, S.(2012).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old age : Focused on the Cheon-an industrial complex's work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245-262.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8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25일